

수국사 극락구품도는 관경십육관도 가운데 아미타극락회를 중심으로 구품연못과 연화화생하는 과정을 9칸으로 나눠 그린 그림이다.



19세기 서울에는 상궁이 발원한 불화가 다수 제작되는데, 이 작품들에는 값비싼 금이 적극 사용됐다. 흥천사 아미타불도 역시 금이 폭넓게 사용된 작품이다.

화려함의 백미, 조선 왕실불화를 만나다

불교중앙박물관, 2월 1일~3월 31일 '서울지역 왕실발원 불화' 展

조선 왕실의 원당, 수국 · 흥천사
불화 및 복장물 총 63점 전시
최초 공개 불화 · 복장물도 다수
"숲 적극 사용한 조선 말기
불화 특징 엿볼 수 있을 것"

조선 왕실의 원당(願堂)이었던 수국사와 흥천사의 불화가 한 자리에 모인다. '서울지역 왕실발원 불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품엔 대중에 처음 공개되는 불화 및 복장물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끈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현조)은 2017 테마전 '서울지역 왕실발원 불화'를 마련하고, 2월 1일~3월 31일 수국사 · 흥천사의 성보문화재 21건 63점(수국사 19건 41점 · 흥천사 13건 13점)을 소개한다. 이 중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물 포함 38점과 흥천사 도량신도 등 5점은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물은 2005년 개금을 위해 불상을 조사하는 과정서 51종 300여 점이 발견됐다. 당시 사기 7과가 안치돼 있던 후령통, 개금중수시의 원문과 발원문, 불교전적 16종 24점, 다라니 20점, 모시저고리와 직물, 보자기 등이 수습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밀교대장 권9〉(보물 제1580호)는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것이 실물로 확인돼 주목받았다. 그동안 세종실록의 기록만 있을 뿐 실물은 전해지지 않은 〈밀교대장 권9〉가 수국사 아미타불 복장서 발견된 것. 이밖에도 복장물서 발견된 판본 중 유일하게 금속활자로 인출된 경전인 〈금강반야바라밀경〉도 함께 전시된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수국사는 1459년(세조5년) 정인사란 이름으로 창건된 후 1471년(성종2년) 인수대비 후원으로 대대적 중창불사가 행해져 총 119칸의 대가람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1504년(연산군 10년) 화재로 소실되며 폐사 직전의 상황까지 갔으나, 1900년(광무4년)에 월초 스님에 의해 중창됐다. 고려시대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비롯해 조선 말기 불화 등 많은 성보가 전해지고 있다.

흥천사는 조선 태조 6년에 신덕왕후의 명복을 빌기위해 정릉을 조영하고, 그 원당으로 세운 절이다. 당시 170여 칸을 보유한 대찰이었으며, 억불숭유정책에도 불구 도성 내 건립된 기념비적인 사찰이다. 이후 고종 2년 흥선대원군이 대대적인 중창을 실시하기까지 '조선왕실의 원찰'로 자리매김했다.

관람객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조선말기 왕실발원 불화의 특징을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가장 큰 특징은 부처님 광배 안쪽 면을 금박으로 가득 채워 존상을 장엄할 만큼 금이 적극적으로 사용됐단 점이다.

이분희 불교중앙박물관 학예팀장은 "고려시대엔 금니 작품이 성행했지만, 조선시대엔 불화에 금을 사용한 경우가 비교적 많지 않았다. 하지만 왕실 후원으로 조성된 불화가 가장 많은 조선 말기엔 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수국사 불화들은 1907년 여러 전각의 중창 후 일괄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왕실불화의 화려한 양식을 잘 나타내고 있단 평을 받고 있다. 금니와 금박을 사용해 색채가 호화롭고 다채로우며, 구도는 안정감과 화려함을 동시에 뽐낸다. 대표적인 전시품은 수국사 십육나한도 · 아미타불도 · 신중도 · 현왕도 등이다.

또한 흥국사 불화들은 주로 왕실과 상궁들이 왕실의 안녕과 복을 빌기 위해 조성된 것들이 많다. 금이 활용된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67호 흥천사 아미타불도(1867)를 포함해 지장시왕도(1867), 극락구품도(조선말-근대) 등 다양한 불화를 보유한다. 이 중 흥천사 아미타불도는 극락보전 불단 후불벽에 봉안된 작품으로, 19세기 중엽 경상북도 사불산 화파의 대표 화승 의운 자우가 보조화원 응완과 함께 제작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현조 스님은 "조선시대 통치이념은 유교로, 불교를 억압하는 '숭유억불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불교는 이 시기에도 왕실과 후궁, 비빈 등에게 신앙으로 유지됐다"며 "이번에 소개되는 조선 말기 왕실발원 불화를 통해 당시 왕실발원 불화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천수경 정법계진언 '羅'는 오류, '邏'로 바꿔야"

세종 계룡사 회주 능현 스님, 본지 기고서 주장

화엄경 입법계품 근거해 분석
'42자문' 중 '邏자문'으로 봐야
이에 따른 해석 오류들도 지적

한국불교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경전 중 하나는 〈천수경(千手經)〉이다. 이 같은 〈천수경〉의 정법계진언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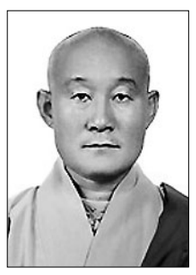
세종시 계룡사 회주 능현 스님〈사진〉은 본지의 기고글을 통해 "〈천수경〉의 정법계진언에 오류가 있고, 이에 따라 맞지 않는 한글 번역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님이 지적한 오류는 〈천수경〉 정법계진언의 첫 머리인 '라자색선백(羅字色鮮白)'으로, '라(羅)'를 '라(邏)'로 바꿔야 한다는 게 능현 스님의 주장이다.

능현 스님은 오류의 근거로 〈화엄경〉 입법계품 42자문을 들었다. '라자(羅字)'은 '아자(阿字)', '남자(藍字)' 등과 함께 42자문에 속한다.

스님은 "〈화엄경〉에서는 여섯 번째 '라자문'은 '라자를 부를 때 반야바라밀다문에 들고 청정함에 머물러 의지하며 일체법을 깨달아 세간의 미혹함에 물들지 않느니라'고 했다"며 "〈화엄경〉 입법계품의 42자문의 라자문의 '라(邏)'는 〈천수경〉 정법계진언의 '라'임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능현 스님은 '라'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은 후에는 해석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고산 스님과 무비 스님의 해석을 분석한 스님은 "첫 구절의 '곱고 고운 빛으로 진언편 것이'라는 해석보다 '라자(邏字)는 곱고 고운 흰색이니'라고 함이 원문의 뜻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구절인 당가차자문(當加此字門, 마땅히 이 진언을 지송합니다)에 대해서는 "이 구절에는 진언도 지송도 없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자문(字門)이며, 이는 〈화엄경〉 입법계품의 42자문 중 라자문을 이르는 문구"라며 "이에 따라 '마땅히 라자문에 이르면 씻어낼 것이니라'고 번역하는 게 바른 한역"이라고 밝혔다.

능현 스님은 "한국불교의 수많은 불자들이 〈천수경〉을 통해 신앙의 첫 걸음에 들고, 수행한다"면서 "정법계진언의 올바른 해석과 헤아림은 불교수행의 근원을 바로 잡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신진작가 6人 콜라보레이션

3월 23~26일 '청년불교미술작가전' 서

지난해 제4회 붓다아트페스티벌(BAF)서 첫 개최되며 청년 작가 등용문으로 주목받은 '청년불교미술작가전'이 2번째 막을 올린다.

'청년불교미술작가전'은 3월 23~26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서 개최되는 제5회 BAF서 열린다. 올해는 특히 한국 전통미술계 신진작가 6명이 '붓다의 일상'을 주제로 공동작업을 진행,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결과물이 선보여져 눈길을 끈다. 참여작가들은 앞서 2차례 걸쳐 기획회의를 여는 등 공동작업을 실시했다.

'붓다의 일상'이란 공동작업 주제는 2017서울국제불교박람회 주제인 '일상이 빛나는 순간, 수행'의 연장선상이다. 각 작가들이 부처님이 공양할 때 및 잠을 잘 때, 쉴 때 모습을 자기만의 상상력과 개성으로 표현했다.

참여 작가 중 도일 스님은 어린이들과 함께 있는 부처님의 천진난만한 모습, 데바닷다와 미친 코끼리의 일화, 자작나무 숲에서 산책하는 모습 등을 소개한다. 박진아 작가는 부처님이 세수하거나 사과 먹는 모습 등을 보여주며, 전혜영 작가는 '부처님이 현대에 산다면'이란 상상을 토대로 작업을 펼친다.

아울러 6명 작가들은 공동작업 외에 개별 작품도 전시한다. 이재윤 작가는 '상원사 문수동자상'을, 이문희 작가는 진영 작품을, 전혜영 작가는 '관세음보살 32응신도'를, 박진아 작가는 '수월관음도'를, 오지수 작가는 '석가모니괘불도'를, 도일 스님은 '묘법연화경변상도'와 '수월관음도'를 선보인다.

박아름 기자

동국대 한문아카데미 연수생 모집

불교학술원, 오는 2월 17일까지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오는 2월 17일까지 한문아카데미의 선발 · 일반 연수생을 모집한다. 선발연수생 정원은 30명이며 불교 및 한문불전 공부에 관심 있는 4년제 대학 재학생 이상 학력이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는 홈페이지 입학안내에서 입학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자기소개서, 대학(원) 재학증명서 혹은 최종학력 증명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일반연수생은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접수해야 한다.

선발연수생의 경우 학기당 16주(3~6월, 9~12월) 강의를 총 4학기 수강하며 30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일반연수생은 학기별로 과목당 신청 가능하다. 월요일 유식30송(묘주 스님), 화요일 유마경(정운 스님), 수요일 장자(이형성), 목요일 원전으로 본 불교교리(원과 스님), 금요일 맹자(한재훈) 강의가 실시된다. 강좌는 오후 6시30분부터 3시간이다.

수업료는 선발연수생 한 학기 60만원, 일반연수생 20만원이다.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각각 42만원, 14만원이다. 조계종 추천 스님이 선발연수생 과정을 수료할 경우 승가고시서 2년 교육경력이 인정된다. (02)6713-5154 신성민 기자

부산불교거사림
1000회 기념 대법회

일 시
2017년 2월 14일(화요일) 오후 7시

장 소
연산동 부산불교신도회관 6층(법계정사 법당)

법 사
종범 큰스님(전,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회 장 공 병 수
임원 및 회원일동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43(연산5동) ☎ 051-442-1280

법당 상황따라!

마이크 단추 한 번 누름에서 장엄하고 위엄어린 소리!
청아하고 은은한 소리! 구슬프게 젖어드는 소리가
연출되어 '재'스님들에게는 평생 밥줄 마이크!

장사 수단

각종 염불시설을 갖추고 법당에서 소리만 비교 후 쌔엥! 가버리면 아! 그 소리 듣고나서 염불이 너무 힘들어! 안되겠어! 한 번 들러요!

백팔번지 이곳은 각종 시스템을 진열하고 많은 스님들을 모십니다. 구경 한번 오시지요!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주)염불소리 ☎ 055)343-1191, 010-9471-2026